

“아기를 갖고 싶어요”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뭐든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법이다. 별려놓은 일에, 몸에 밴 습관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하루 아침에 다 허물고 새출발을 하자니 쉽지 않은 것이다.

사업도 그러한데 새사람을 맞는 일이란 또 어떻겠는가. 말 만하게 다 자란 자식들을 앞세우고 새로운 반려자를 맞는 사람들은 보통 고민이 아닐 것이다.

54세의 중견 사업가 P씨는 2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자리를 보살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자녀들의 설득으로 40세 처녀와 재혼하는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의 환자가 되었으니, P씨의 심각한 속 앓이란...

13년 전에 받은 정관수술로 단산상태인 남

자와 엄마가 되고 싶은 마흔 살 여자의 꿈이 충돌한 것이다.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 아내는 자상한 남편 못지 않게 자상한 파트너, 멋진 남자를 원했고, 첫 아내와 사별 후 성생활이 없었던 P씨는 발기력이 약하고 지속이 안되는게 늘 불안하기도 했고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거기다 그의 아내는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아닌가?

아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댁의 뜻은 성생활의 불만족을 그렇게 조심스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보기로 하고 음경해면체 촬영술로 검사해 본 결과, 정맥의 피가 음경 뿌리 쪽으로 누출되고 있었다. 해면체의 평활근을 쌓는 백막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탄력성을 잃고 발기가 되지 않는 ‘정맥기능부전’ 현상이다.

문제 속의 문제...

그러니 정관복원술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기대하기 힘들테고, 아기를 갖기란 더더



욱 요원한 일이었다.

“13년이나 결찰상태로 있었으니, 수술을 해도 임신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정관복원수술 성공률은 90% 이상 자신하지만 임신 성공률은 60%정됩니다. 그것보다 발기부전이 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정맥누출에 의한 발기부전일 경우엔 혈관수술을 해도 얼마가 지나면 다시 누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관복원수술과 발기부전의 두 가지 수술이 모두 필요한 환자였다. 두 수술 모두 필요하므로 부부와 상의한 후 수술에 들어갔다. 그것도 보형물삽입과 정관복원수술을 동시에.

먼저, 자가팽창형으로 30분만에 보형물을 삽입시킨 후에, 미세한 현미경 수술로 정관을 복원시키는데 1시간으로 끝냈다.

노심초사했던 새댁 부인은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저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는데요...”

“두 수술 모두 잘 됐으니 우선 기다려보죠”

퇴원 한달 후 자가팽창형을 작동시켜 발기를 유발시키고 사정시켜 정액검사를 해보았다. 현미경 시야에서 정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수술 모두 성공이었다.

기뻐하는 P씨에게 ‘꼭 2주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알려 주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자 그가 득달같이 달려 왔다. 숨길 수 없는 얼굴로 파안대소하니, 이후 대화야 생략해도 되겠고 신 넷의 가을을 맞던 P씨는 건강한 딸을 얻었다.

늘그막에 딸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가, 사업을 확장했는가, 이후엔 소식이 뜸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으니, 아기를 원하던 아내 사랑 받느라 정신없어서 그럴 거라고 믿고 있다. [72]

국 내의 약정보

40代 넘으면 순환기계질환 위험성 3배

40세이상 중·노년층의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순환기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39세이하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南貞子부연구위원은 ‘만성 순환기계 질환 유병률과 관련 위험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95년 보건사회연구원원이 전국 2만2천6백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행태 조사결과’ 등 각

종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순환기계질환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나이(老化)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다음 위험요인인 과다체중과 당뇨병을 지닌 사람들은 고혈압, 뇌졸중(중풍),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높았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도가 1.2배 높았으며 수면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순환기계 질환 발병률이 각각

1.2배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인구 1천명당 27명인 것으로 추계됐는데 남녀 모두 2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30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40대 이후는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뇌졸중 즉 중풍 유병률은 인구 1천명당 5.7명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 46.1%는 실내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할 정도로 중증이며

57.3%는 실외에서 활동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심장병 유병률은 1천명당 11.5명으로 남자가 5.3명인데 반해 여자가 17.4명으로 훨씬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부터 급증했다.

사회경제적 계층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거나 2백50만원 이상인 사람의 순환기계 질환 발병률이 높았으며 군지역 거주자가 도시민보다, 농·어업 종사자가 다른 직종보다 유병률이 높았다. [72]